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임 수 진*

호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3개 지역의 5개 대학, 1-4학년 429명 대학생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성별이나 계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더욱 증가하였다.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안정된 부모애착을 형성할수록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하였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 심리적 독립은 전체로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고 하위요인 중에 갈등적 독립만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고 갈등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사이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 중 갈등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사람과의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부모애착, 심리적독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호남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수진,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E-mail : sujulin429@honam.ac.kr

청년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형태가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의 현실적 실천 단계로 진로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는 시기이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9; Super, 1988). 대학생들은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탐색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직업을 선택한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 어려움과 더불어 취업률을 통한 대학평가라는 현실적 요구에 의해 대학과 연구자들은 청년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들은 정보의 부족, 진로와 관련된 자기 이해 부족 등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정서적 요인에 의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다(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정체감, 진로사고, 진로성숙, 진로준비행동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해 이루어져왔다(김수임, 김창대, 2009). 이러한 요인 중에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가 아닌 구체적 행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전공을 이미 선택하고 직업을 구하는 대학생들은 막연한 진로에 대한 사고나 태도보다는 직접적인 준비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발달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학년이나 전공

과같은 개인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안정성과 부모의 지지나 수용 등의 관계적 변인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의 질은 실제 진로발달을 포함한 인간 발달과 적응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정원근, 2014; Blustein, 1994). Super(1988) 역시, 가족과 동료와 같은 중요한 관계는 개인의 자기-개념 발달을 촉진시켜 진로발달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모에 대한 안정애착과 심리적 독립(분리-개별화 포함)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Lopez & Andrews, 1987; Blustein, 1994, O'Brien, 1996; Blustein, Prezioso & Schultherss, 1995; Tokar, Withrow, Hall, Moradi, 2003).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강정은, 2008; 김은진, 천성문, 2001; 목경수, 구자경, 2012;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심지연, 2013; 이은희, 2011; 진현정, 2010; 최옥현, 김봉환, 김계현, 2007).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애착과 심리적 독립중에 먼저 애착에 대해 살펴보면, 애착(Attachment)은 주 양육자와 맺게 되는 신뢰로운 관계를 말한다. Bowlby(1988)의 애착이론은 주 양육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내적작동모형(internal working model)으로 기능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형성하여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Ainsworth(1989)도 개인은 진로발달 및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을 떠나 다양한 외부환경을 접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개인은 이 애착관계를 안전기지(secure base)삼아 세상에 대한 탐색과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힘들거나 두려울 때 이 신뢰로운 관계는 안전한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능동적 탐색을 지속할 수 있다.

애착인물에 대한 안전감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 그리고 진로탐색과 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안정된 애착은 진로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탐색능력을 촉진하고 진로발달의 심리적 자원이 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 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은 적극적인 진로탐색, 나아가 사회적이고 지적인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Kenny & Lopez, 1992).

애착과 관련한 진로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은경, 2001; 임진, 2004; Ryan, Solbery & Brown, 1996)과 진로태도 성숙(이내은, 2002; O'Brien, 1996) 수준이 높았으며 역기능적 진로사고(최현영, 서영석, 2005)는 적게 하였다. 그리고 진로탐색행동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류진영, 2008; 박은선, 2008).

하지만 애착과 진로관련변인 연구 결과는 애착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은선, 2008;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와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득연, 홍경자, 2004; 진현정, 2013; Ryan, Solbery & Brown, 1996)가 보고되어 일관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모애착과 진로미결정이나 진로탐색행동 등 진로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은 심리적 독립이다(김수임, 김창대, 2009). 심리적 독립은 애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보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애착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은 Mahler(1975)의 분리-개별화 개념에서 출발하여, 어머니와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개인적 의사결정, 문제해결, 감정조절에 관한 자율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Havighurst, 1972). 진로탐색을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떨어져나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부모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심리적 독립과 관련한 국내 대학생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적이고(정은희, 1993; 정원근, 2014)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리적 독립이 낮은 대학생들은 높은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미결정 점수가 더 높았으며(박찬주, 1992; Kinner, Brigman, Noble, 1990),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았다(박완성, 2002). 부모와의 관계에서 개별화가 덜 되었다고 보고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김은진, 천성문, 2001).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은 4가지가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일상사를 스스로 처리하는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부모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는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부모의 친밀감, 인정, 지지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부모에 대한 부담감,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갈등적 독립

(conflictual independence)이 있다. 이 중에서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갈등적 독립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은, 2008; 김은진, 천성문, 2001; 김정미, 2007; 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좌태실, 2006; 심지연, 2013;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성공적인 개인의 적응에서 갈등적 독립이 높을 시에 개인적 적응력과 및 대인관계 적응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1984).

갈등적 독립은 부모를 향한 죄책감, 불안, 불신, 책임감에서 자유롭고 부모의 분노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하며, 이 갈등적 독립이 진로의식 성숙과 진로탐색 행동 진로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김은진, 천성문, 2001).

국내 진로발달과 관련한 연구에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영향변인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에 부모가 영향을 주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수임, 김창대, 2009).

진로준비행동에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진로 관련 변인들을 통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부모애착은 진로탐색행동,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격려,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심지연, 2013; 오은영, 2013; 진은영, 권경인, 2011; 진현정, 2010). 심리적 독립도 진로탐색 행동,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준비행동에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등을 통해 직접, 간접적 영향을 준다 (김은진, 천성문, 2001;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심지연, 2013).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관련 변인의 메타분석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가장 많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O'Brie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지만 애착과 합쳐진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 Making Self-Efficacy)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 된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활동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Taylor & Betz, 1983).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선중, 2005; 이명숙, 2002).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과 이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갈등적 독립)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천안시에 소재해 있는 대학 5곳에 다니는 대학생 445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2, 3, 4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과 통계적 사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는 H대학의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면제 판정을 받았다. 수거된 440개의 설문 중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429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46명, 여학생이 283명이었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68명, 2학년이 101명, 3학년이 150명, 4학년이 110명 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애착 척도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R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를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신뢰차원, 소통차원, 소외차원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25문항이며 신뢰차원이 10문항, 의사소통 차원이 9문항, 소외차원이 6문항이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척도이며 총점은 25에서 125점 사이이다. 소외는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를 느끼지 않는 것이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04 이다.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신뢰차원이 .897, 의사소통 차원이 .901, 소외차원이 .815이었다.

심리적 독립 척도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

정하기 위해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척도 (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정은희 (1992)가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척도는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6문항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척도이다. 총점은 56점에서 280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75 이다. 하위요인의 신뢰도계수는 기능적 독립 .801, 태도적 독립 .804, 정서적 독립 .792, 갈등적 독립 .892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단축형(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이은경(2000)이 대학생과 중고생을 포함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완수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전체는 2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이다. 총점은 25에서 125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72이다.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자기평가 .859, 직업정보수집 .765, 목표설정 .624, 계획수립 .705, 문제해결 .792이다.

진로준비행동검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한 것을 이명숙(2002)이 인터넷 정보의 발달과 대학의 학교상담센터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이 진로발달에서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8문항으로 총점은 18에서 72점 사이이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아주 그렇다 까지 4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14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가까운 거리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하였으며, 먼 거리는 수업을 담당할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뒤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을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평가하였고,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 Cook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시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해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였다.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를 따랐다. 먼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지, 두 번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세 번째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이 함께 종속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9.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초분석 및 상관분석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별, 학년, 단과대학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43.445였고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43.169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진로준비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F_{(1,512)}=10.488, p<.001$). 1학년은 진로준비행동 평균이 39.941, 2학년은 41.317, 3학년은 43.860, 4학년은 46.291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증가하였고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1-3, 1-4, 2-4 학년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행동의 차이 (N=429)

		N	M	SD	F	P
성별	남	146	43.445	8.714	.313	.754
	여	283	43.169	8.593		
학년	1학년	68	39.941	1.013	10.488***	.000
	2학년	101	41.317	.831		
	3학년	150	43.860	.682		
	4학년	110	46.291	.796		
계열별	인문사회계열	118	44.016	9.417	1.969	.118
	경영계열	99	41.787	8.273		
	이공계열	94	42.627	8.644		
	기타계열	118	44.254	7.936		

***p<.001, **p<.01, *p<.050

간에 차이를 보였다. 계열별로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역시 인문사회계열, 경영계열, 이공계열, 기타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학년을 통제 한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구하였

다.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r=.187, p<.001$)을 보였고,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 역시 정적 상관($r=.200, p<.001$)을 보였다.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r=.185, p<.001$)을 보였고, 심리적독립과 진로준비행동간에도 정적상관($r=.118, p<.01$)

표 2. 각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애착	심리적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부모애착	-			
심리적독립	.077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87***	.185***	-	
진로준비행동	.200***	.118**	.539***	-
평균	74.729	174.282	84.400	43.263
(표준편차)	(5.666)	(18.618)	(12.845)	(8.625)

***p<.001, **p<.01, *p<.050

표 3.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SE B	β	t	R ²	F
부모애착 전체	.294	.070	.193	4.219***	.105	25.070***
소통차원	.460	.127	.169	3.620***		
부모애착 신뢰차원	.188	.101	.089	1.870*	.110	13.164***
소외차원	.278	.162	.080	1.718		
심리적 독립 전체	.012	.022	.026	.550	.069	15.684***
기능적 독립	-.095	.073	.083	1.303		
심리적독립 태도적 독립	.022	.072	.017	.306	.091	8.492***
정서적 독립	.022	.096	.015	.230		
갈등적 독립	.103	.042	.119	2.469**		

* $p < .05$, ** $p < .01$, *** $p < .001$

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역시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539$, $p < .001$)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

다변량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통계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의 가정을 따랐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d값이 2에 가깝게 나와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역시 10을 넘지 않아 변량의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이때 학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모두 학년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표 4.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B	SE B	β	t	R ²	F
1단계 부모애착→진로준비행동	.294	.070	.193	4.219***	.101	25.070***
2단계 부모애착→진로결정자기효능감	.423	.108	.187	3.927***	.035	15.419***
부모애착→진로준비행동	.152	.061	.100	2.498*		
3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337	.027	.502	12.582***	.348	75.656***

* $p < .05$, ** $p < .01$, *** $p < .001$

하였다.

부모애착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beta=.193, p<.001$), 심리적 독립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갈등적 독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beta=.119, p<.01$). 그래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갈등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효과로 확인하였다.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193, p<.001$), 두 번째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beta=.187, p<.001$). 그리고 세 번째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였으며($\beta=.100,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역시 진로준비행동도 증가하였다($\beta=.502, p<.001$). 부모애착의 설명이 1단계에서($\beta=.193,$

$p<.001$)보다 3단계($\beta=.100, p<.001$)에서 줄어든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로 해석된다. 즉,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가 있음을 나타낸다. 1단계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10% 설명하였지만 3단계에서는 34%로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다시 한번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1.198의 Z값($p<.05$)이 산출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갈등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역시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첫 번째 갈등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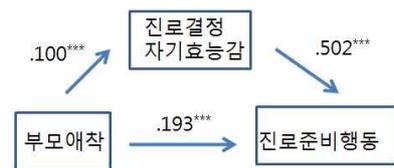


그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5. 갈등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정서조절	B	SE B	β	t	R ²	F
1단계	갈등적독립→진로준비행동	.099	.040	.115	4.219***	.081	18.775***
2단계	갈등적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40	.061	.187	3.928***	.035	15.428***
3단계	갈등적독립→진로준비행동	.016	.035	.019	.46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347	.027	.517	12.876***	.339	72.62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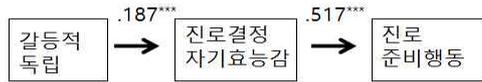


그림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115, p<.001$), 두 번째 갈등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87, p<.001$). 그리고 세 번째 갈등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모형은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갈등적 독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갈등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진로준비행동의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전 매개모형인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1.357의 Z값($p<.05$)이 산출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갈등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 통계에서는 성별과 계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연구결과(이주희, 2004)와 다르지만 남녀학생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현정(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취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학생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진로준비행동의 인구학적 변인 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년별 변인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김봉환, 김계현, 1997;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제경,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1, 2학년에 비해 3, 4학년이 더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애착은 진로준비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애착이 진로관련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득연, 홍경자, 2004)와는 다르지만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은선, 2008)와 일치하였다. 진로관련 연구들에서 안정된 부모애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진로태도를 성숙하게 하며, 역기능적 사고는 하지 않도록 하고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였다(이내은, 2002; 임진, 2004; 최연영, 서영석; 2005; O'Brien, 1996; Ryan, Solbery & Brown, 1996)

진현정(2010)과 오은영(2013)에서도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문명녀(2015)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안정된 부모와의 애착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결정과 진

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애착이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와의 애착을 살펴보았지만, 애착은 성인기에도 의미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따라서 진로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고 이러한 만남이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적 독립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하위요인인 갈등적 독립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 중에서 갈등적 독립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강정은, 2008; 김은진, 천성문, 2001; 김정미, 2007; 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심지연, 2013; 좌태실, 2006;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분노, 불안 등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대학생의 직업적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Lopez(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갈등적 독립은 직접적으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완전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사이를 매개한 강정은(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강정은(2008)에서는 갈등적 독립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관련 연구들은 부모와의 안정애착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신의 진로발달과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Lee와 Hughey

(2001)에서 애착을 통제하였더니 심리적 독립은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O'Brien(1996)에서는 애착을 통제하여도 심리적 독립은 진로관련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 사이에서는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관련 변인들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부각된 결과 중에 하나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갈등적 독립은 완전매개를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을 매개하기도 하고(강정은, 2008; 김선중, 2005), 부모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하기도(이지연, 2013)하였다.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과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확고히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적절한 진로발달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효능감은 과거 성취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각성으로 향상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성취경험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모의면접이나 인턴쉽 경험 등을 통해 취업관련 성취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기-보고 질문지가 갖는 한계점으

로 진로준비행동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진로와 관련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행동을 측정하였지만, 구직활동 횟수나 모의면접 참석횟수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이 다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한 것이다 진로성숙의 수준이나, 필요성 지각의 수준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한계이다. 3개 도시의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총화표집과 같은 통계적으로 검증력이 우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과 더불어 환경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과 결정을 하였지만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을 구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

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9).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 4(1), 147-162

김정애 (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경수, 구자경 (2012). 고등학교 부모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119-1139.

문명녀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애착과 진로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221-245.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은선 (2008). 아버지 유형이 대학생의 진로 탐색자기효능감과 아버지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 11(1) 47-64.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찬주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 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246-289.
- 심지연 (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은영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1(1), 13-21.
- 이내은 (2002).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득연 홍경자 (2004) 가족의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84-199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희 (2011).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 및 자아 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6(2), 401-425.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 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주희 (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한국청소년 복지, 6(1), 103-115.
-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 연구, 20(6), 219-241.
- 임진 (2003). 애착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전은영, 권경인 (2011). 애착과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243-260.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좌태실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현정 (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옥현, 김봉환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최현영, 서영석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427-453.
- Blustein, D. L. (1994). "Who am I?": The question of self, New York University Press.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2nd.ed.).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New York: Basic Books.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vighurst, R. (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2nd.ed.). New York: Longman.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th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 170-178.
- Kinnier, R. T., Brigman, S. S., & Noble, F. C. (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309-312.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304-317.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New York: Guilford Press. 46-76.
- Super, D. E. (1988).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51-357.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원고접수일 : 2015. 10.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2. 23.

최종게재결정일 : 2015. 12. 26.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ujin Lim

Honam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established the study modeling which shows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d independence,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mediat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variables which can mediate attachment, independ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questionnaire has carried out for 429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findings were follow: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grade. but there are n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sex and affiliation. Parent attachment has significant influenced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direct way and in the indirect way. Psychological Independence don't has influenc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Specifically conflict independence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subvariables provided significant explanation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n mediate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partial mediation, and can mediate conflict independ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full mediation. The more they had secure attachment with parent, the more they we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ore they had conflict independence, the more they we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